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4) 구속

Our World Belongs to God



심재승 (돌트칼리지 교수)

칼빈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칼빈신학교에서 신학석사를 하고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국 돌트 칼리지(Dordt College)에서 신학교수로 재직중이며, 기독교 교육, 기독교대학 교수 훈련과 공공신학에 관련하여 일하고 있다

북미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교단에서 발행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Our World Belongs to God)』를 연재합니다. 이 문헌은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현재의 사고와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여 살 것인가를 다룬 문서로 한국 교회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재합니다. 이 문헌의 소개는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돌트칼리지(Dordt College)의 심재승(신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 문서의 한글 전문은 "<https://www.crcna.org/welcome/beliefs/contemporary-testimony/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편집자).

본문 해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죄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셨으나 멸망으로 향해가는 세상에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셨다'로 나타난다(단락 18). 이어지는 단락 22까지 죄로 망가진 사람과 세상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구약에 전개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큰 줄기를 해설한다. 그리고 다음 주제인 '그리스도'(23-27)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내용을 해설한다.

본문은 성경의 구속을 '잃어버린 자를 그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고 이 세상을 그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두 개의 큰 내용으로 요약한다(단락 18). 구속되는 그 두 대상은 다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단락 22)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단락 20)로 표현된다. 본문이 밝히는 구속의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여 그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신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어 그의 나라를 회복하신다'이다.

구속 (Redemption)

18.

하나님께서서는 죄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셨으나
 멸망으로 향해가는 세상에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셨다.
 오래 참음과 섬세한 돌보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그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고
 이 세상을 그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다.¹

19.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추방되고 죄의 영향으로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인류에 의해 야기된 악의 세력을
 물리쳐주실 것을 약속하셨다.²

20.

이 땅이 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셨으나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절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다시는 그와 같은 멸망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을 모든 창조물들과 언약을 맺으셨다.³

21.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시고
 자신에게 순종하여 살도록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온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의 영광과 사랑의 능력과 구원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왕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스리시므로
 그들 안에 이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⁴

22.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이방인들을 섬기면서
 권력과 부를 의지하면서 약한 자들을 억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들 속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셨고 복음을 선포할 선지자이며
 사단을 쳐부수고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며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제사장인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마음과 영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셨다.⁵



1. 창세기 3:9-15, 요한복음 3:16, 누가복음 1:68-75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살펴 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에 대하여 요한 계시록 11:15를 살펴보라.
2. 아담과 하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창세기 3:15-19에서 살펴보라.
3. 창세기 6:8-17, 베드로전서 2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다시는 홍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 궁극적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요한계시록 21:1-5에서 살펴보라.
4. 창세기 12:1-3, 신명기 7-8장,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라. 미가서 6:8과 이사야서 60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온 민족의 빛임을 살펴보라
5. 백성을 흠오심에 대하여 역대하 36장과 이사야서 10:1-11을 살펴보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는 이사야서 53장, 예레미야서 31장과 에스겔서 36장을 보라.



성경의 구속사에서 노아 홍수의 기록은 앞으로 전개될 구속의 성격과 내용을 예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사용 하셔서 죄가 가득한 세상과 생명체를 ‘심판’하셨으나, 노아의 가족과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장래 구속을 예시하시는 ‘언약’을 모든 창조물들과 맺으셨다. 그 언약은 생명체를 위협하는 물이 다시는 세상을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약속이다.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창조 세상에 두신 뜻인, 그리고 생명체들이 살기에 적합한 시간과 날씨가 계속하여 ‘유지’될 것을 명하셨다 (단락 20).

노아의 홍수 기사는 구속 계획의 첫 번째 예시로서 구속을 창조세계 전체와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창세기 6-8장은 방주에 초대된 생명체들이 창조기사에서 만들어진 양식인 ‘각기 그 종류대로’인 점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노아 방주가 단순한 구원의 방주가 아닌 창조세계의 축소된 형태인 점을 강조한다. 위에 언급한 구속을 향한 언약도 사람과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9:10)”과 함께 맺으셨다. 물이 마른 후에는 창조기사의 양식의 따라서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명체에게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8:17)”며 생명체에게 축복을 주셨으며,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중에서 번성하라(9:1-7)”는 생명의 복을 주셨다. 그리고 죄가 해결되지 아니한 시기에 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망가진 채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증거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하셨다. 2절에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원래 주어졌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조 소명이 비록 다른 언어이기는 하지만 동물들이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는 말씀에 연장되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창조기사 2장의 패턴을 따라서 홍수 물이 마른 후에 사람들이 먹고 살 식량을 제공하신다. 동물의 살을 먹되 '생명 되는 피 채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후에 일어날 피를 통한 구속을 예시하고 있다.

노아 홍수는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는 죽임과 함께 새 창조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두 가지 메시지가 창조세계 전체를 포괄한다는 점, 그리고 원래 창조 세계에 두셨던 창조주의 목적과 뜻을 물이 마른 후의 세상, 정화된 세상에 이어가신다는 메시지는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의 성격과 대상을 예시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구속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문이 각주에 소개하는 베드로후서 3장은 노아 홍수의 메시지와 기능을 전제로 하여 구속의 큰 그림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물을 사용하여서 사람과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제하셨던 것과 같이 장래에는 불로 그렇게 하실 것을 계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다. 물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세상을 정제하시므로 구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계획하셨다. 베드로가 창세기 1:1부터 세상의 창조를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으로 이해한 것을 따라서(3:5-7), 같은 물을 사용하신 노아 홍수가 마른 후에 그곳에 창조주께서 자신의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의 축복을 주신 창세기 5-9장의 노아 홍수가 심판-죽음의 의미임과 함께 새 창조-생명의 축복의 의미인 것을 알게 한다. 이 모든 구속의 계획

이 실행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을 해하는 물인 '바다'는 없으나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생명수의 강'은 흐른다(요한계시록 21:1, 22:1).

노아 시대에 주셨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단락 21은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약 전체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속역사의 큰 줄기를 서술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개인으로 선택되어 언약을 받았지만 그러한 선택과 언약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민족'을 포함하는 열국의 아비로 받았다. 그것은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보인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세기 12:2)". 그리고 그 언약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언약의 실천에 불충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 이삭에게 이르고 다시 야곱을 포함하는 자손들에게 연장된다. 사람들의 불충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에 충실하시다는 사실이 구속을 이루시는 원동력이 되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려진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즉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으로써 세상의 온 나라들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백성의 모델이 될 사명을 의미하였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이사야 49:6; 이사야 60:1-3, 사도행전 13:47 참조)".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하나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자신의 백

성으로 새롭게 만드시면서 궁극적으로 온 나라들의 구원을 품고 계심을 볼 수 있다.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30 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다(갈라디아서 3:15-17).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때에 율법을 알지도 못하였다는 뜻이다. 이것은 구속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증명하는 백성들 쪽의 약속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다. 후에 생긴 율법이 먼저 주어졌던 언약을 없이 하지 못하며 (바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던 바와 같이) 오히려 언약의 목적, 즉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러한 의미에서 율법이 언약에 더해졌다 (갈라디아서 3:19).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에 포함되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의 뜻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종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다.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로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의 정결한 삶을 유지하고 율법이 정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왕은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율법의 시행자였다. 선지자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적합하게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

저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잃고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이스라엘 중 열 지파는 결국 이방 민족에 흡여져 사라지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가 오셔야 했는데 그 메시아는 완전한 선지자요, 왕이며,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다. 그 메시아는 ‘복음을 선포할 선지자이며, 사단을 쳐부수고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며,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제사장’이라고 본문은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다(단락 22). 구약성경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마치며 신약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가 그 메시아임을 증거함으로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별안간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세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틀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할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것이다. 이것은 구약에 전개된 하나님의 구속역사가 신약에 연장되어 완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구속사는 하나의 구속사로서 약속을 주님과 구속계획 실행의 시작, 그리고 완성이라는 점진적인 과정을 보이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하나의 구원 계획으로부터 다른 계획으로 바뀌는 전환의 관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은 다음 주제인 ‘그리스도’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현재 사고와 삶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가를 아는 것에 달려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속은 그 첫 번째 예시인 노아 홍수와 언약으로부터 그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믿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원래 원하셨던 바대로 자신의 나라로 완성해 가시는 것이다. 본문 단락 18의 언어로 하면 위에 언급한 바대로, 구속의 큰 목표는 '잃어버린 자를 그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고 이 세상을 그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구속의 두 요소로서 개인적인 요소 (믿는 개인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구속)와 우주적인 요소 (온 만물을 자신에게 화목 하시는 구속)이다. 구속의 이 두 요소는 하나의 구속에 속한 것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실한 삶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가심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구속의 의미는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본문의 제목에 상징적으로 요약되어 있으며, 본문 맨 뒤에 서술한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러한 구속의 이해가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세계관을 형성한다. 성령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죄 용서로 인해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새 생명이 부여하는 경건의 능력은 구속의 전체 범위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 그것은 개인 구원의 차원과 함께 삶의 전체 범위에까지 연장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구속의 경건한 능력이 삶의 전체 범위에까지 연장되어야 하는 예를 갈라디아서 3장의 끝에서 볼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바울 당시 널리 퍼져있던 사람들 사이의 차별을 극복하여 원래 창조의 평등하고 통일된 삶으로 회복하여야 함을 포함하고 있다. 구속받

은 백성을 세상의 빛이라 칭하신 예수님은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 개인과 공동체가 실천할 '착한 행실', 즉 세상을 향한 교회의 책임과 소명으로 말씀하신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4-16)".

예수 믿어 천국에 간다는 일부 기독교 신앙의 표현을 굳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복음의 풍부한 내용을 축소하여 일부만 언급한 것이거나 또는 그것을 개인적이고 기복적이며 탈 세상적인 시각 안에서 왜곡한 것이다. 즉 그것은 예수를 믿어서 변화할 대상이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로 시작하여 종교적인 삶과 함께 그리스도인 전 인간이 변화하고, 삶의 양식이 변화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데까지 연장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복음 전체를 보지 못한 결과이다. 생명은 생명체의 몸 전체를 통하여 삶 전체에서 살아 작동한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받은 새 생명의 경건과 능력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든 영역과 행하는 모든 행동에 드러나야 한다. 잃어버린 자를 불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온 세상을 그의 나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에 있는 것이다. 